화순 전남도민체전 오늘 개막

22개 시·군 20개 종목 선수단 5988명 4일간 열전

배드민턴 이용대 성화 최종주자

제49회 전남도민체전이 27일 화순에서 화려한 팡파르를 울리고 열전 4일에 돌입했다.

대회 사상 처음으로 화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문화중심 화순에서 하나된 건강체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2개 시·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988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육상·축구·테니스·궁도 등 18개 정식종목과 역도·바둑 2개 시범종목을 합친 20개 종목에 걸쳐 시·군대항전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5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대회 첫 실내 개막식으로 도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회식 식전행사로 한천농악단의 체전 성공 터밟기 공연과 특공무술 공연단의 축하공연, 원앤원의 탁악과 비보이, 중앙무용단의 소리 공연 등이 펼쳐진다.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최종주자는 화순 출신의 2008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이용대가 주인공이 되고, 성화 점화는 실내 점화에 이어 실외 점화로 이어지는 이색 점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회식 이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너릿재 주유소 앞과 이양농공단지 앞 등 4곳에서 꽃다발 증정으로 선수단 환영행사도 갖는다.

이번 대회 기간 중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6개 시·군 9개 민속문화예술팀이 4일간 대행시장 특설무대에서 공연을 펼친다. 화순 10대 농·특산물 전시와 보성 서예, 진도 짚불공예, 영암 사진 전시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또 F1대회와 2012 여수박람회 그리고 2013순천정원박람회 홍보관도 운영될 계획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도민체전 이색참가자들

담양 김용기·고점례씨 10년 연속 부부선수

강진 황호용씨 종목 바꿔가며 27년째 출전

제49회 전남도민체전에 가족 선수 또는 30년 이상 연속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다.

이번 대회에 쌍둥이·자매·부녀·부자·부부·형제간의 가족 선수들은 모두 44명(22쌍)이다. 이들 중 부부선수가 9쌍으로 가장 많다. 함평 정구대표 백기영(64)·정희숙(61) 부부는 이번 대회 부부선수 중 최고령이다.

이번 대회 시범종목인 역도선수로 나서는 커플도 있다. 무안대표 최동길(40·현 전남체고 역도감독)·조양희(36) 부부가 그 주인공으로 이들은 90년대 국가대표 선수였다. 남편 최동길씨는 94년 히로시마아시안게임 역도 은메달리스트이고 부인 조양희씨는 유도국가대표 였다.

현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이번 대회 담양 정구대표로 출전하는 김용기(54)·고점례(54)부부는 10년 연속 대회에 출전해 환상의 호흡을 맞추고 있다.

함평 정구대표 백기영·정희숙 부부

여수 정구대표 김순기(55)씨는 올해로 37년째 출전하는 도민체전 '단골선수'이다. 또 김순기씨는 처음에 목포대표로 뛰었다가, 코치생활·군입대·취직을 하면서 해남·영암·여수 등 각각 다른 지역대표로 활약한 이색경력도 있다.

화순 탁구대표 오국탁(54)씨는 대회 34년째 출전 선수로 김순기씨에 이어 두번째 최다 연속출전자이다.

전남도체육회 이사 황호용(66)씨는 27년째 강진대표로 뛰면서 역도·배구·씨름·정구 등 종목을 바꿔 출전해 오고 있다.

성화 최종주자 이용대(화순·배드민턴)를 비롯해 김완수(무안·검도)·김광욱·김영훈·최복음(이상 광양·볼링) 등 5명의 국가대표가 고향의 명예를 걸고 뛴다. 옛 국가대표 출신은 총 9명으로 영암(3명)·담양(2명)·여수(2명)·무안(2명) 대표로 각각 나선다.

이밖에 이번 대회 최고령 선수는 74세의 장성 궁도대표 김재홍 옹이고, 최연소는 담양 육상대표 장지영(15)군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루니, 동료가 뽑은 '올해의 선수' 英축구선수협회 선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스트라이커 웨인 루니(25)가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함께 활약하는 동료가 뽑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루니는 26일(한국시각) 영국 런던에서 치러진 '영국축구선수협회(PFA) 올해의 선수' 시상식에서 최종 후보자로 경쟁을 펼쳤던 디디에 드로그바(첼시)·카를로스 테베스(맨체스터 시티)·세스크 파브레가스(아스널)를 제치고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즌 42경기에 출전해 34골을 터트린 루니는 시즌 초반 8경기에서 7골을 뽑아냈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3경기에서 25골을 작렬할 정도로 뛰어난 결정력을 과시했다. 루니의 'PFA 올해의 선수' 선정으로 맨유는 2007~2008년 연속 수상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지난해 라이언 긱스에 이어 4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한 팀이 됐다. /연합뉴스

신광중 정구팀이 지난 25일 동신고 정구장에서 열린 제15회 장원배 중고정구대회에서 5연패를 달성한 후 기뻐하고 있다. 〈신광중 제공〉

광주 신광중 장원배 정구 5연패 위업

여중부 단체결승 대구 황금중 2-0 꺾고 우승

광주 신광중(교장 노치권) 정구팀이 장원배정구대회 5연패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신광중은 지난 25일 동신고 정구장에서 열린 제15회 장원배 전국중·고대회 여중부 단체전 결승에서 대구 황금중(A)을 2-0로 꺾고 우승했다. 26일 열린 개인복식에서도 신광중은 금·은·동을 휩쓸었다.

이번 대회 단체전 우승으로 신광중은 지난 2006년부터 5년 연속 대회 정상을 굳건히 지키며 '최강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신광중은 이날 경기에서 첫번째 복식조로 나선 박은이-백설 조가 황금중 홍인진-조은애 조를 맞아 초반 한 게임씩 주고받으며 세트스코어 2-2의 접전을 펼쳤다. 후반 박은이의 센터공격이 적중하면서 팽팽했던 경기가 박은이-조은애 조로 기울면서 4-2로 경기를 마무리 했다.

이어 열린 두번째 복식에서 홍경화-박가은 조는 홍경화의 스트로크와 박가은의 스매싱으로 상대 이지영-김지수 조를 초반부터 기선제압해 4-1로 가볍게 승리했다.

신광중은 조예선에서 순창여중을 2-0, 황금중(A)를 2-0으로 각각 제압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에서 신광중은 황금중(B)을 2-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개인복식 결승에서는 홍경화-백설 조가 팀 동료인 장주연-홍은정 조를 4-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은이-박가은 조는 준결승에서 장주연-홍은정 조에 패해 3위에 그쳤다.

신광중은 지난해 장원배 뿐만 아니라 대통령배 4연패, 전국소년체전 2연패 그리고 동아일보기 대회 석권으로 올해 1월 조정순 체육상의 영예도 안았었다. 지난 1985년 창단한 신광중 정구팀은 지난 2008년부터 재창단의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나 각종 전국대회를 휩쓸며 전국무대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서승원기자 swseo@

"한국 첫상대 그리스 잡아야 16강 기회"

히딩크, 신구조화 강조

세계적 축구명장 거스 히딩크 감독은 한국이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첫 상대인 그리스를 잡아야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6일 방한한 히딩크 감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별리그 첫 경기"라며 "그 경기를 이겨야 2라운드에 진출하는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본선 B조에서 그리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와 차례로 맞붙는다. 월드컵 최다 출전 사령탑인 히딩크 감독은 본선 첫 경기에서 좋은 내용으로 이기면 첫 경기에서 느꼈던 중압감이 앞으로 전력을 배가하는 날개가 된다고 해외 언론을 통해서도 그간 몇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의 조별리그 전망에 대해서는 월드컵 본선을 경험한 박지성, 이영표 등과 이청용 같은 젊은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벨기에의 2018년 또는 2022년 월드컵 유치를 홍보하기 위해 5박6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29일 '히딩크 드림필드'를 건립하는 내용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29일 광주를 방문한다. /연합뉴스

김연아 주식회사 '올댓스포츠' 설립

김연아(20·고려대)의 법률상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안은 26일 "김연아의 어머니 박미희 씨가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김연아가 주주로 참여하는 ㈜올댓스포츠(AT S-PORTS)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올댓스포츠는 김연아의 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앞으로 아이스쇼와 스포츠 꿈나무 육성 등으로 사업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

박미희 씨는 새 매니지먼트사 설립에 대해 "IB스포츠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서 김연아의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김연아가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다. 김연아를 직접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